

요약

디지털 헬스케어는 2023년 CES의 주요 테마로 자리 잡으며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시함. CES에서 도출된 5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키워드는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방향을 제시함.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내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보험산업은 건강 데이터의 이동에 주목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고령층의 필수 도구가 될 것을 고려하여 독립적이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전략을 고민해야 함

- CES(Consumer Electronics Show)¹⁾ 2023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500여 개 의료기술 기업의 기술 및 제품이 전시되고, 22개의 세미나가 열리는 등 주요 주제로 자리매김함
 - 올해 CES는 핵심 주제를 제시하며 진행한 첫 번째 행사로 모든 인간을 위한 안전(Human Security)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지속가능성 등 5개 주제의 상품이 전시되고 관련 세미나가 이루어짐²⁾
 -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수면상태 진단, 버추얼 케어, 스포츠테크, 자가 진단,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만성질환 관리, 하이브리드 케어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방대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짐
- 본고에서는 CES 2023에서 발표된 세미나와 전시를 통해 나타난 디지털 헬스 트렌드를 5가지 핵심 키워드로 설명하고 향후 국내 보험시장 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헬스 데이터의 이동: 병원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며, 이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축적되던 건강 관련 데이터가 향후 일상생활 공간으로 더욱 빠르게 이동될 것임을 의미함
 - 전문가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단과 수집되는 데이터의 분석은 개인의 건강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병증 검사 및 진단의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함³⁾
 - 집에 설치된 열 카메라와 음성 바이오 마커로 얻어지는 데이터의 AI 분석은 신경퇴행성 환자 억양과 걸음 패턴의 신속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대사산물 분석으로 신체의 수분 및 영양 섭취 가이드와 여성건강 사이클 추적이 가

1) 독일 IFA, 스페인 MWC와 함께 3대 IT 전시회로 IT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식품, 해양, 우주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걸친 최신 기술과 상품을 소개하는 박람회로 최신 기술 트렌드 파악이 가능함

2) 제시된 5개의 주제는 CISION NEWS(2023. 1), "What Not to Miss at CES 2023"을 바탕으로 작성됨

3) CES(2023), "The Future of At-Home Testing and Diagnosis"

능한 상품도 출시됨⁴⁾

-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되는 심전도를 사용하여 뇌진탕 바이오 마커를 측정 하는 등 스포츠 활동 중 리스크 감지가 가능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음⁵⁾

2. AI분석 확대: 치료의 정확도와 개인화 증진

○ AI를 사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질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개인화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⁶⁾

- 백신 제조회사인 모더나(Moderna)는 환자들의 건강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 이들의 모든 염기를 AI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관찰된 돌연변이를 활용하여 개인화된 암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함⁷⁾

3. 디지털 헬스케어: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도구로 정착

○ 고령자들의 독립적이고 즐거운 삶을 위한 자가진단 및 건강 위험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가 증가함

- 팬데믹 이후 고령자의 디지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졌으며, 활동적인 고령자가 늘어날수록 특히 비상의료경보장치(Personal Emergency Response devices; PER)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⁸⁾
 - 휴대폰 사진으로 심박수, 혈압, 스트레스, 혈당을 포함한 약 1,000개의 진단을 제공하는 앱(Nuralogix's Anura App)이나 센서가 장착된 웨어러블 청진기를 통해 흉부소리 및 호흡 수 등 자가진단이 가능하게 하는 기기(Aeiv eMD), 몸의 밸런스를 측정해 고령자의 추락사고 확률을 제시하는 앱(Zibrio) 등 출시됨
- 전문가들은 고령자들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기기 설계가 아닌 삶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함⁹⁾

4.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내 혁신과 융합을 위한 파트너십 증가

○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글로벌 제약회사인 모더나, 글로벌 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 AMA와 같은 의료기관 모두 혁신과 융합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조함¹⁰⁾

- 빅테크 등 기술 기반 기업은 전통적인 의료기관 외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디지털 개인 건강 정보(PMI)와 기술을 의료 생태계에 전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도 이제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의 가치를 수용하려 노력하고 있음

4) 각각 I-STAT TBI Plasma test(휴대용 장치에 혈장샘플을 넣으면 뇌진탕을 나타내는 단백질을 분석할 수 있는 테스트로, 격렬한 운동 중 뿐만 아니라 추락·충돌과 같은 일상적 사고 발생 시에도 빠르게 진단 가능)와 Withing's U-Scan(변기에 장치하여 사람의 대사산물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장치)

5) CES(2023), "The Future of Sports Health Technology"

6) CES(2023), "AI, Digital Health and the Future of Patient Care"

7) CES(2023), "Personalized Medicine: The Future of Cancer Treatment is Not One Size Fits All"

8) 팬데믹 이후 65세 이상 인구의 36%가 원격 의료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년 6%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임

9) CES(2023), "Virtual Care and Independent Living: Keeping Seniors Safe"

10) CES(2023), "Big Tech in Health"

5. 디지털 건강 데이터의 분산화 이슈 대두

- 건강 데이터가 생태계 내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집되고 있으므로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분산되어 축적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데이터의 비효율적 사용 및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¹¹⁾
 - 수면 상태, 섭식, 가정 내 혹은 외부 활동 등 다양한 건강 데이터가 각기 다른 플랫폼을 통해 추적·수집되고 있어서 서로 통합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디지털 헬스케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건강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통합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기기 간 연결 그리고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정비와 규제 도입이 시급함

〈그림 1〉 CES 2023를 통해 본 디지털 헬스케어 5대 키워드



-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내 사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다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디지털 건강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헬스 데이터는 향후 보험회사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다양한 데이터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¹²⁾
 -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헬스테크 기업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CES에 참석한 국내 기업¹³⁾ 등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시 단순히 의료비 절감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향후 직면할 위험에 대해 스스로 대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간병인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고 위험이 관리되며 지속적인 사회 활동으로 삶의 재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헬스케어 서비스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1) CES(2023), "Hybrid Care and The New Normal"

12) 이미 해외 기업들은 광범위한 디지털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분석하여 위험분석 후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 및 상품개발에 활용 중에 있음(일본 마이신, 일본 MS&AD, 일본 쇼포 등)

13) SK바이오팜, 롯데헬스케어, 라이프시맨스를 비롯해 닥터나우, 웨이센, 브이엔티씨 에이아이포핏 등이 참여하여 상품을 전시함